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9월 10일(수) 제 3168호

새만금 RE100, 미래 에너지 청사진 그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최
산연 협업 생태계 조성 모색
AI·수소·풍력 등 최신 기술 포럼
지역경제활성·지속가능 산업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RE100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축한다.

전북자치도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새만금 RE100 미래를 여는 THE 특별한 전북의 100년'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공동 캠페인이다.

전북은 새만금 일대에 RE100을 구현할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는 전북의 RE100 비전을 알리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개막식에서는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산단'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는다. 오후에는 방송인 럭키와 다니엘이 '환경과 에너지'의 대한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선보인다.

RE100 포럼은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AI와 에너지, 분산형 시스템, RE100 글로벌 혁신 모델 등을 다루며 최신 기술 트렌드와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수소·풍력·분산에너지 분과 포럼도 마련돼 각 영역별 전문 토론이 이어진다.

컨벤션센터 1층에서는 전북도 홍보관과 18개 기업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 기술과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 도내 대학의 석·박사 연구성과 포스터 전시도 함께 한다.

박람회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관이 가능하며, 기업·연구기관·학생 등 에너지 산업 관심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군산대 RIS사업단은 중·고등학생 대상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재 양성에 힘쓴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산학연관 연계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RE100을 향한 해법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새만금, 미래 에너지 허브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RE100 미래를 여는 THE 특별한 전북의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 한희경 전 의원 임명 논란

음주·무면허·공직선거법 위반
도의회, 임명 과정 아쉬움 표명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이 임명돼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전북특자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1일자로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이 임명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서울로 진학한 도내 출신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장학숙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민간 위탁 기관이다.

장학진흥원은 지난 7월 16일 임기를 마친 전 관장의 후임을 공고를 냈고, 1차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한 관장을 임명했다.

한 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당직 생활을 했고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아 6개월간 의원 생활을 했다. 그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검증에서 탈락해 무산됐는데 전과 기록이 있었다. 그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총 5건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모두 12~13년 전 일로, 현행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형렬(전주 5) 도의회 기재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장학숙 관장은 청문회나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임명 소식을 뒤늦게 알았다"며 "비록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기관인만큼 이번 임명건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가을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민관합동 축제장 안전 확보 총력
구조물·전기·가스 등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 개최되는 도내 지역 대표축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축제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축제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가을철은 전국적인 축제 성수기로, 도내에서도 ▲무주반딧불축제(9.6.~9.14.)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9.18.~9.21.) ▲진안홍삼축제(9.26.~9.28.)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9.26.~9.28.) ▲김제지평선축제(10.8.~10.12.) ▲임실N치즈축제(10.8.~10.12.) 등 다양한 축제가 개최된다.

대부분 야외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각 시군과 경찰·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축제 개최 전 축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시 무대·조명·천막 등 구조물의 설치 상태 ▲전선 노출, 문어발식 배선 등 전기시설의 안전성 ▲가스배관 및 LPG용기의 설치 상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확보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및 축제 주최 측에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해 축제 개막 전까지 안전 위해 요소를 해소하도록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이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축제 관람객도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의원,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전략 포럼 개최

농업·건설 로봇 경쟁력 강화 필요
정부 주도 표준 선점 전략 강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AI 산업대전환 전략 구상」 포럼을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변동성이 큰 현장에 대한 실증단지 조성과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포럼에서는 먼저 성균관대 우홍욱 교수의 'Physical AI시대: Agentic AI에서 산업 혁신으로!'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현대건설 박영준 상무의 "모빌리티가 변화시키는 미래도시", 대동 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의 "AI-Driven Innovation in Future Agriculture", 서울대 고소작업 건설로봇 사업단장 안창범 교수의 '피지컬 AI시대의 건설로봇 기술 개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성균관대 이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전북특자도, 김제시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 방향과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원택 의원

참석자들은 "앞으로 피지컬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누가 먼저 현장에 적용하고, 누가 먼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특히 농업, 건설, 국방, 특수목적 모빌리티 등 필드로봇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주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가 조성되고 특장차 단지와 융합하여 피지컬 AI를 적용하면 새만금에 또다른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소 건설작업장이나 시설농업 단지 등 변동성이 큰 현장에 대한 데이터 계측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전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 1위'

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구매율 2.11% 전국 최고치 달성
기관 교육·컨설팅·판로개척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1위를 기록하며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전북도는 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서 2024년도 우선구매 실적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전북도의 우선구매율은 2022년 0.23%, 2023년 0.72%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2.11%까지 끌어올리며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도는 공공기관과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안착과 확산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온 성과로 의미가 크다. 시상식에서는 전북도 외에도 ▲완주군이 지방자치단체 부문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생산·판매시설 부문에서는 완주떡메마을이 수상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의무구매 비율이 1%에서 1.1%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부서별 실적 관리, 맞춤형 컨설팅, 전시·판매 행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효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는 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서 2024년도 우선구매 실적을 인정받아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전북도>

지방시대위원회, 14명 민간위원 새 위촉

경제·자치분권 등 각계 전문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위촉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민주권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9일 새롭게 위촉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민간위원에는 경제, 자치분권, 지역교육, 산학연, 자치입법, 기본사회, 벤처생태계, 거버넌스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등 각계 인사 14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기존위원을 대신해 경륜, 능력, 추진력 등을 고려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5극3특 지역을 대표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정부에서 14개 주요 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4대 협의체 대표자가 참여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 성장 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자치분권 확대,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12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11일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한다.

/장정철 기자

황영석 의원 "'전국 2위 성장' 전북 염소 산업 제도권 밖 방치돼"

농가 60% 등록 못해 사각지대
폐사율 낮출 백신·교육 필요

황영석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전북자치도 염소 산업이 전국 2위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농가가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도내 염소 사육두수는 7만 7,723두, 농가 수는 1,081호로 전국의 18%를 차지하고 한우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종사하는 주요 축산업임에도, 사육 농가의 60%가 축산업 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에서 배제되고, 위생·방역 관리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자치도가 흑염소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최근 3년간 추진한 정책은 사실상 '기자재 지원'뿐이었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염소 등록 지원사업도 순창·장수 일부 지역 3천 두에 그치는 시범사업에 머물러, 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시범사업이 아니라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현장 농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바닥재나 적재함 같은 소모성 기자재가 아니라, 새끼 염소 폐사율을 줄일 백신 지원, 사양 관리 기술을 높일 체계적인 교육"이라며,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실질적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저렴한 수입산 염소고기 유입이 늘면서 국내산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실제 도내 음식점에서도 수입산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6월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는 도내 118개 업소 중 8개소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11~12일 표결할 듯

금품 수수 혐의…의사국 보고
국민의힘 '자율투표' 방침

국회는 9일 통일교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10일 또는 11일,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10일이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있다는 점에서 다음날인 11일 또는 12일에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율투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체포동의안의 가결될 것을 보인다.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에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

적용 시점 2027년 9월로 연기
계란값 안정·농가 부담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가 9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2027년 9월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산란계협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도록 했다. 개정 이후 새로 지은 농장은 즉시 적용을 받았으나, 기존 농가는 7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9월까지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농가의 적용 시점은 2027년 9월로 다시 조정된다.

전북도는 유예기간 동안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추진한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동안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가격고시제는 9월 말 폐지된다.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1회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발간해 시장 가격 전망을 제공한다.

농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는 산란계 농가가 축사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별로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중·소규모 농가는 FTA 기금과 이차보전을 활용해 최대 5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가는 최대 13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방식이다. 적용 이자율은 FTA기금 1%, 이차보전 2%로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낮아 농가의 시설 개선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2025년 전북 협동조합 대상
2개 조합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협동조합 대상(大賞)'으로 '군산시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동체 가치 실현, 비전, 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 단체에는 도지사 표창과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군산시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 케어 서비스로 취약계층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통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역 농산물 유통과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협동조합 대상(大賞) 수상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의원, 개사육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전업·직업 전환 온전히 활용토록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라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폐업지원금과 전환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지만,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폐업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비과세는 2024년 8월 7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해 기존 농장주도 창업이나 직업 전환에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폐업지원금 과세는 사회적 약속 이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 안착과 법안 조속 통과를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 社告 -

전북타임스가 주최하고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도지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13회 전북어린이 자연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알립니다. 본사는 애초 시상식을 오는 13일(토) 오전 11시 전주시청 강당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를 해왔으나 최근 특정 지역의 일부 수상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고심 끝에 대면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 및 부상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주요 수상자 작품은 12일자(금) 12면에 다시 한번 게재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한 계획 변경으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수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전주시, 부실공사 원천 차단한다!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감사관동행 현장 검사과정 '감독'

전주시가 설계·시공의 구조적·관리적 부실에 의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부실공사 원천차단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의 종합대책은 전주지역 공사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 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부실 공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하고, 부실 공사 신고센터 운영과 부실공사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지역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또 시는 △불법하도 근절 △부실시공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도급금액 70억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된 직접시공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키로 했다.

확인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설계서와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피복두께의 적정성 △철근 노출 여부 △철근 배근 위치의 적정성 △콘크리트 균열 여부 △개구부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여부 △비계발판 고정 여부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현장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가 시정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준공 후에는 발주부서에서 실시하는 하자 검사를 통해 공사 시공 원인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보수 및 재시공으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시에는 감사관이 동행해 현장 검사 과정을 엄격히 감독할 예정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전주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시 금고 선정 돌입

올 연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
차기 금고 지정 추진

전주시는 올 연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시 금고는 전주시의 소관 현금과 시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 전주시 재정운영 업무를 취급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는 2조 6623억원 규모이며, 제2금고는 1414억원 규모다.

현재 전주시 제1·제2금고는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 23.01.01.부터 25.12.31. 까지 관리가 이어진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3년이며, 1금고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2금고는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금고 지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고 지정 업무를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제2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 총 5개 항목의 19개 세부항목이다.

평가위원은 전주시금고 금고지정 심리위원회 조성 조례에 따른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교수 변회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관계자 등이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 기관을 제1금고로, 차순위 기관을 제2금고로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전주시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선정에 앞서 오는 18일 대우빌딩 7층 영상회의실에서 사전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 14~15일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시금고 관리 금융기관을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조선 왕조 발상지 '전주 성지혜윰길' 운영

지역특화 치유순례 프로그램종
교문화·전통문화 체험

다양한 전주의 종교자원을 포함한 전주전통문화 체험의 장 '치유순례 프로그램'이 운영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지역특화 치유순례 프로그램 '2025 전주 성지혜윰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치유순례 프로그램'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 총 10회 운영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전주의 역사와 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전주의 다채로운 종교문화·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치유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체류형 종교문화 관광상품이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4만원이며 식사와 숙박이 모두 포함된다.

'전주 성지혜윰길'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서부 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주의 종교자원과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종교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종교문화여행은 총 2개 코스로 구성된다.

1코스는 기독교와 천주교 종교 자원과 전통문화체험(한옥, 향사례, 기접놀이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전통문화연수원 등을 방문하며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숙박한다.

2코스는 4대종교(기독교·천주교·불교·천도교) 자원 및 템플스테이로 구성됐으며 △치명자산성지·평화의전당 △파랑새관·녹두관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내 템플스테이에서 1박을 보낸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종교문화 해설사가 동참해 전주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풍성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남북여행 누리집(www.nbtour.co.kr)으로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사습청 복합문화공간 조성·발전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전주시의회 정책토론회

전주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주대사습놀이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시의회 김정명(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이성국(효자5동),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은 9일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대사습청과 공동주최로 전주대사습청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대사습청 유영수 관장의 '전주대사습청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대사습놀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문적·체계적인 보전과 전승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주시의회 김정명, 이성국, 김성규의원은 9일 전주대사습청과 공동주최로 전주대사습청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의회>

토론회는 유영대 전북특별자치도국립원장을 좌장으로 강준영 위덕대학교 겸임교수, 김용호 전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 맹준재 ㈜티에이알 대표, 염계화 서경대학교 교수, 한동엽 포천문화관광재단 예술단 운영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최자인 김정명·이성국·김성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전주대사습놀이가 단순한 경연 위주의 기능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 촉구"

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촉구 성명 발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됐다.

전북건단련은 "전북권 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2006년 김제공항 건설 백지화 이후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2019년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선정되면서 비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의 국내외 반대 활동과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건단련은 특히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오는 9월 11일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며, 이미 2024년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 2006년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매립면허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가 불필요한 논쟁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건단련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 사업"이라며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기에 건설하고 개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북건단련 소재철 회장은 "최근 12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AI·가상융합산업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 운영

전북 청년 누구나 참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AI·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위한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 활동은 청년 멘토와 연계해 AI·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가 주관한다. 특히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청년 거버넌스 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내 거주하는 AI·가상융합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18세~39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흥원 누리집(www.jica.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부 양식을 확인 후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참여단은 팀당 5인 구성 활동하게 된다.

또 각 팀은 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멘토와 매칭되어 실질적인 창업 아이디어 기획 및 실행 교육을 받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AI 특강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실습 △가상융합콘텐츠 체험 등이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며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교류·발전할 도모할 수 있는 이번 활동에 AI·가상융합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벼 병해충 차단 공동방제 나서

이상기후 선제적 대응
예비비 7000만원 추가 투입

전주시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벼 병해충 확산에 예비비를 투입, 드론 및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추가 공동방제에 나선다.

시는 최근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벼 병해충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예비비 7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총 890ha 규모 농지에 대한 공동방체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총 3차례에 걸친 공동방체를 통해 벼 병해충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4차 공동방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극적인 예찰과 선제적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고령화로 영농 인력이 부족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가을 농축산물 절도예방' 활동 전개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농축산물 절도 예방 특별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활동은 수확 철을 맞아 농산물 가격 상승과 함께 절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농가·보관창고 등 농축산물 취급장소의 방범진단 및 점검 마을 CCTV 작동 점검 지역별 범죄 발생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과 자율방범대 등 민·경 합동순찰 강화 농민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추석 연휴 화재 안전망 강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오는 추석 연휴(9월 5일~10월 10일)를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한 특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전국에서 2천여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해 108명 인명피해와 200억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기간 118건 화재가 발새됐으며, 절반 이상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등 생활 속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전통시장·대형마트·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 △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 화재취약시설 36개소와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시설 13개소 대상 맞춤형 안전컨설팅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134개 단지에 대한 서한문 발송과 주민 대피훈련을 집중 추진한다.

시민 생활과 가까운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함께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하고, 전문의용소방대가 예방순찰에 나선다.

/정소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전북농협, '농심천심 운동' 실천 결의

아침밥 먹는 날 맞아 전북 쌀·제철 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9일 농협전북본부 구내식당에서 '아침밥 먹는 날' 행사를 진행하며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실시한 '아침밥 먹는 날'은 범농협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 농협은행 전북본부 김성훈 본부장, NH농협전북지부 노동조합 박병철 위원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의 새로운 농업·농촌 국민운동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북에서 생산된 쌀 및 제철 농산물을 이용해 전북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됐으며, 금차 행사는 동김제농협의 '유러피안 샐러드'와 함께했다.

유러피안 샐러드는 동김제농협에서 김제지역 스마트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GAP인증 채소를 수확부터 발송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 6종 및 샐러드 2종(닭가슴살, 꽃맛살)을 전국 각지의 샐러드 및 포케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농협샐리' 등)을 통해 유통되는 주력 상품이다.

이정환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쌀, 오늘의 샐러드와 같이 앞으로도 소비가 필요한 다양한 농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공감과 가치를 높이는 농심천심 운동 확산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9일 농협전북본부 구내식당에서 '아침밥 먹는 날' 행사를 진행하며 '농심천심 운동' 실천을 결의했다.

신협, 강릉 가뭄 피해복구 성금 5천만원 전달

피해 주민 일상 회복 지원 "지역사회 회복 역할 최선"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8일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을 5천만원을 전달했다.

강릉시청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김동기 신협 강원지역협의회장(정선신협 이사장 겸 신협재단 이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장형열 신협 강원지역 영동평의회장(양양신협 이사장), 김남철 강릉신협 이사장, 이상혁 관동신협 이사장, 황상명 강릉동인병원신협 이사장, 민경대 신협 강원지역본부장 및 강릉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성금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릉시청에 전달됐다.

성금은 강원 지역 33개 신협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2170만원과 신협사회공헌재단의 긴급 지원금을 더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가뭄 피해로 불편을 겪는 강릉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가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강릉지역 주민들께 위로를 전하며, 이번 성금은 강원지역 신협이 자발적으로 조성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재단은 △2022년 울진·삼척 산불피해 지원금 13억원 △2025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지원금 9억원 등을 기탁하며, 금융 동반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신협중앙회는 지난 8일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을 5천만원을 전달했다.

전기안전공사-효성중공업, 안전관리 협력 맞손

송·변전 특수설비 검사기준 선진화 등 협력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효성중공업 본사에서 효성중공업㈜(대표이사 우태희)과 송·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변환설비·유연송전설비) 안전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압 직류송전(HVDC)과 변환설비 검사 기술의 향상을 통해 에너지 전력망 구축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송·변전 특수설비 검사 기술 및 검사기준 선진화 추진 △송·변전 특수설비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협력 △직류·유연송전설비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 협업 기술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력망 구축에 기여하고 송변전 특수설비 국산화 기술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수설비 검사기술을 선진화하는 등 치밀한 에너지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중공업 우태희 대표이사는 "송변전 특수설비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국내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효성중공업 본사에서 효성중공업㈜과 송·변전 특수설비 안전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조달청장, 콘크리트블록 제조업체 방문

판로확대 지원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9일 유한회사 우리산업(공동대표 강춘화, 백종선)을 찾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 남원시에 소재한 유한회사 우리산업은 콘크리트블록 및 배수로 등을 생산하는 콘크리트제품 전문 제조업체다.

업체는 2015년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콘크리트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산업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북지방조달청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항수 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조달업체에서도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고산농협, 금융사기 예방 대포통장 근절 홍보 나서

고산농협은 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고산농협은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 안내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자금이체, 앱 설치, 대출신청을 미끼로 수수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할 경우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손병철조합장은 "농협의 주고객인 조합원과 농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중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팀장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본관 모악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팀장급 이상 보직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법인 이상 대표 노무사인 이지웅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실시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주요 유형, 관리자들의 예방적 리더십,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향식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폭넓게 다뤘다.

사전 질의 접수제도를 운영해 관리자들이 실제로 겪거나 궁금해하는 문제를 강의 중 직접 다루며 해법을 모색한 것도 이번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건강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통장·체크카드 연결 신규 이벤트

체크카드 발급 활성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생활비 관리에 특화된 JB STAY ON 통장의 자동·직접 충전 기능을 알리고, 연결 체크카드 발급 활성화를 위해 '일상을 충전하다, JB STAY ON 통장 연결 체크카드 신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JB STAY ON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생활 속 다양한 충전 테마를 활용해 충전 기능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는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먼저 '감성충전'은 오는 14일까지 체크카드 신규 발급 후 매주 1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매주 2명(총 4명, 1인 2매) 추첨을 통해 JB카드콘서트 티켓을 증정한다.

'허기충전'은 이벤트 기간 동안 체크카드 신규 발급 후 매주 10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9주 동안 매주 5명을 추첨해 총 45명에게 '배달의 민족' 1만 원 쿠폰을 지급하며, '지갑충전'은 체크카드 신규 발급 후 누적 사용 금액이 90만 원 이상인 고객 중, 1명을 선정해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이번 이벤트와 함께 JB STAY ON 통장+체크카드 동시가입 프로세스를 신설하고, 체크카드 결제 중 잔액부족 상황에서 실시간 충전 안내로 금융 편의성을 강화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지역특화 특용작물 산업화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9~10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진안)에서 '2025년 특용작물 기능성·이용 분야 중앙지방연구협의체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농업기술원 지역특화연구소 등 14개 중앙·지방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특용작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1부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산업화 사례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김창수 박사가 '천마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최신 연구동향으로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정찬헌 팀장이 '지역특화작목 활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 상명대학교 정대식 교수가 '인공지능 기반의 천연물 분석과 효능 예측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의 2026년 신규 공동연구사업 기획안을 공유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행사가 기관 간 교류 확대로 이어져 지역특화작목 산업화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정책대결 시작된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들'

제4회 전북교육포럼 노병섭·황호진·오준영 유성동·이경한 참석

내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의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됐다.

9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개최된 '제4회 전북교육포럼'은 사실상 전북교육감 선거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다수의 정치인들과 예비 후보자들, 전북 교육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새참교육 노병섭 대표와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이다. 공식적으로 출마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높은 인지도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도 참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감 출마를 포기하고 교사노조연맹 회장으로 선회했다.

포럼은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전북학생의원총연합회, 전북교육클린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개회사는 김희수 전북교육포럼 준비위원장(전북도의회 제8대 의장)이 맡았다.

정동영 국회의원과 강경숙 국회의원,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북교육청 전 부교육감이 축사하며,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전북연구원장을 조기 퇴임하고 출마를 확정한 이남호 원장과 전북교육감 유력 후보인 천호성 교수, 김윤태 우석대부총장은 개인 일정으로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포럼은 '도덕성과 신뢰 회복,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현장 중심 리더십 발굴'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오준영 전북교총회장이 맡아 '표절과 교육 리더십의 위기, 정직하지 못한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훔친다'를 주제로 시작됐다.

이후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교사도 정치기본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주제로, 마지막은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전북 교육, 왜 늘 교문 밖에서만 리더를 찾았는가'를 발표했다.

9일 개최된 '제4회 전북교육포럼'은 사실상 전북교육감 선거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다수의 정치인들과 예비 후보자들, 전북 교육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박정희 도의원과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정성윤 전주교대 교수가 참여했다.

포럼에 참여한 교육계 전문가는 "이번 포럼은 사실상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었다"며 "어떤 발표는 특정 후보를 저격하는 느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총괄한 오준영 대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이 진짜 민주진보 정신 속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논개' 재해석 창작 오페라 막 올려

장수 한누리전당서 선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담은나라(대표 이대정랑)의 우수작품 레퍼토리 'FROM 논개·High-End 콘서트 희로애락'이 오늘 오후 7시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재단이 주관하는 '202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우수작품 레퍼토리로 기획됐다.

이 사업은 공공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률 제고와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특히 우수작품 레퍼토리는 관객 호응과 완성도가 검증된 기존 작품을 선정해 해마다 재구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유통을 확장하는 지원 유형이다.

이번 공연은 예술담은나라의 대표 창작 콘셉트인 '창작 오페라 콘서트' 형식이다.

퓨전국악과 클래식을 융합해 역사적 인물 '논개'의 서사를 현대 감성으로 재해석한다.

창작타악 예술단체 (사)타악연희원 아퀴(대표 박종대, 이하 아퀴)가 협연해 전통 타악이 어우러진 입체적 사운드를 들려주며 무대의 스케일을 확장한다.

/장정철 기자

전주대, '천원의 아침밥' 통해 학생 복지 실현 앞장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학생 건강 증진·학업 능률 향상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가 교내 재학생들의 건강한 학업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오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하고 차별화된 식단을 천원의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업 능률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다.

재학생들은 교내 학생식당(최고당돈가스, 든든, 버거앤타코, 스타밥스)에서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행사 메뉴는 덮밥, 김밥, 부리또, 컵밥 등 영양과 든든함을 모두 잡은 다양한 아침식사로 구성됐다.

전주대학교 신숙경 학생취업처장은 "학업과 진로 준비로 바쁜 학생들이 균형 잡힌 아침식사를 통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캠퍼스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베트남서 첨단 수의학 협력 '성과'

공동실험·실습센터 마련 교육·연구 역량 강화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ALiVE 프로젝트)을 통해 추진 중인 베트남 빈(Vinh)대학교 역량강화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8월 실시한 3차 년도 제2차 파견을 통해 빈대학교에 '첨단 축산·수의학 실습실(공동실험·실습센터)'을 개소하고, 수의학 핵심 분야 실습교육과 산학협력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2차 방문을 통해서 전북대 사업단은 학습법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글로컬 PBL 기반 수의학 공동실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수의교육 봉사활동'을 현지에서 실행하고, 실습교육, 임상진료, 산학협력 활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해 베트남 전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 총괄을 맡은 김남수 단장과 강형섭·장형관·김범석·박병용 수의대 교수진들이 참여해 교육과 연구역량 강화에서 성과관리까지 전문적 노하우를 전했다.

이들은 빈 대학 수의·축산학부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미생물학, 병리학, 조직학, 약리학, 외과학 등 실습 중심 교육을 집중 운영했고, 감염 동물 사례 분석과 병리 부검, 조직 염색, 외과수술 실습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임상능력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현지 동물병원과 연계한 협력수술 실습은 실무 중심 교육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산학협력 활동도 본격화했다. 전북대 파견단은 지역 가족기업인 SHIBA 동물병원을 방문해 지역 진료 현황과 정형외과 수술 교육 수요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 이전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김남수 베트남사업단 단장은 "이번 파견은 베트남 현지 대학이 자립형 교육·연구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제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학교비정규직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해야"

내년 예산안 공무원 임금 인상 학교노동자 차별 심화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규직에 비해 절반에 머무르는 차별적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학비연대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공무원 임금이 최대폭으로 인상되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이 크게 오른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차별에 묶여 정규직과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규직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다"며 "1년 중 4개월 동안 방학이라는 이유로 생계불안에 시달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생활비를 줄여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9일 개최된 '제4회 전북교육포럼'은 사실상 전북교육감 선거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다수의 정치인들과 예비 후보자들, 전북 교육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백승재 전북지부장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차별,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소 등이 필요하다"며 "학비연대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통해 사회 대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수업나눔 박람회 참여 교사 모집

내년 예산안 공무원 임금 인상 학교노동자 차별 심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에 참여할 교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업나눔 박람회는 내달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함께, 수업愛 빠지다'를 주제로 도교육청과 전주우림중학교 등에서 펼쳐진다.

전북교육청은 학습자 중심 수업 방향 설정, 수업나눔 교직 문화 형성, 깊이 있는 학습 수업사례 나눔으로 교사 미래교육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해마다 수업나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개막식 공연 및 나의 수업 성장 이야기 나눔, 교육정책 대담 패널, 수업나눔, 교육학습공동체 부스 운영 등이다.

박람회의 핵심인 학교급별 수업나눔에는 6팀, 특수 3팀, 초등 36팀, 중등 36팀 등 총 81팀을, 교육학습공동체 부스 운영은 연구회·교사연수회·학생중심동아리 사례나눔을 중심으로 80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업나눔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각급 학교 교사는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 공문 발송 및 개별 통보한다.

/최성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정읍시, 제118회 단풍아카데미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 초청 강연

정읍시가 제118회 단풍아카데미를 열고,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 자녀 교육과 웰빙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18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연지아트홀에서 열린다. 학부모와 청소년은 물론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 교수는 '자녀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웰빙'을 주제로,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자녀 교육과 학습을 어떻게 건강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통해 풀어낼 예정이다.

서울대 언어학 석사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언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조 교수는 현재 옥스퍼드대 동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참여는 사전예약제로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일상문화도시 익산' 12~13일 시민·동호인 생활문화 축제 개최

익산 유천생태습지공원에서 시민과 동호인이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축제가 열린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9회 익산시민생활문화제 – 일상문화도시 익산, 페스타(Festa)'가 오는 12일 오후 7시 유천생태습지 야외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이명준) 주최로 진행되며, 동호회원들이 열정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서는 한국무용, 통기타, 색소폰, 고고장구, 퓨전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3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출연해 시민들과 어울리는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

현장에서는 공연 외에도 서예, 캘리그라피, 공예, 다육이 화분 만들기 등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명준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익산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익산이 생활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책 낭독~편집까지 실습형 '오디오북 만들기' 교육 운영

군산콘텐츠팩토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내 목소리로 만드는 오디오북' 교육을 운영한다.

'내 목소리로 만드는 오디오북' 교육은 책을 직접 낭독하고 녹음한 뒤, 녹음 파일을 편집해보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평소 오디오 북에 관심 있는 군산시민(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산콘텐츠팩토리는 지난해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디오북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였다.

교육 과정은 △오디오북 이론 및 편집프로그램 기초 △음향스튜디오 녹음 △음성파일 편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참여 신청은 19일까지 군산시청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www.gunsan.go.kr/gcf)에서 QR 부호(코드)로 접수 가능하며, 교육 인원은 10명으로 선착순 모집 예정이다.

군산시 김형옥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오디오북 제작 교육을 통해 자기표현력과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다이로움' 10월 구매 한도 확대

100만 원까지 충전 13만원 인센티브 추가 혜택도 지역활기 기대

최대 23%의 혜택이 주어지는 익산 다이로움이 10월 한 달간 구매 한도를 확 늘린다.

익산시는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과 시민의 날(10월 3일)을 기념해, 10월 한 달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충전 혜택(인센티브)을 10%에서 13%로 높인 데 이어, 이번엔 충전 한도까지 파격적으로 늘리며 지역 곳곳에 활기와 소비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시민 누구나 10월 중 다이로움을 1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3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60만 원 한도(혜택 7만 8,000원) 대비 무려 5만 2,000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가맹점과 착한 가맹점에서는 추가 할인까지 더해져 충전 인센티브와 할인을 합해 최대 23%의 혜택을 얻게 된다. 지역 상권과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진짜 소비 축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10% 할인이 적용되는 정책지원가맹점은 치킨로드(7곳), 착한가격업소(36곳), 청년몰(12곳), 지역서점(29곳), 글로벌문화관(3곳) 등 총 87곳이며, 다이로움 택시(1,000여 대)도 포함된다.

또한 착한가맹점(53곳)에서도 다이로움 카드로 결제 시, 자체적으로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의 체감 혜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가맹점 정보는 다이로움 앱 내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 매장인 익산몰과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10월 시민화합대축전 기간에 열릴 풍성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리·익산 통합 30주년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자 '다이로움 한도 확대'라는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며 "10월 한 달간 익산 전역이 하나의 큰 축제장이 돼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서무실록' 누적 방문자 1만 5천 돌파

개인 비망록→전국 공무원 행정업무 해결책으로

군산시의 협업 기반 온라인 업무 편람 '서무실록'의 누적 방문자가 1만 5천 명, 재방문자는 4천 명을 돌파했다.

'서무실록'은 군산시 디지털정보담당관 권영, 이정민 주무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협업형 온라인 업무 매뉴얼이다.

'서무실록'을 만든 권영 주무관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사이동 시기에는 어느 사무실이나 '고요한 비명'으로 가득찬다고 하더라.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업무를 맡다 보니 말로는 할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 이 고민이 바로 서무실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다른 기관 신규 공무원의 극단적인 소식을 접한 권 주무관은 '공무원도 시민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데,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서무실록'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에서 동료들의 공감과 참여를 얻으며 전국적인 협업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군산시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24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은 '서무실록'이 공무원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한 성과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시는 전국 7개 지자체에 혁신행정 비결을 전수하는 '정부혁신 멘토링'에 참여했다.

광주 동구, 서천군, 담양군, 영광군, 울산 중구, 함평군, 예천군이 군산을 방문해 '서무실록'·'정책반올림' 등 혁신행정 비결을 전수받았다.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접속 지역은 군산을 넘어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등 전국으로 분포돼 있으며, 정기 인사철에는 신규·전입 직원들의 방문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 역시 서무실록이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행정업무 해결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인 셈이다.

권영 주무관과 이정민 주무관은 "서무실록'이 앞으로 업무를 표준화하고 현행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조직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추석 앞두고 예초기 특별 점검·정비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10월 2일까지 무상 점검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초기 특별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비실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간 중 농업인이 예초기를 지참해 방문하면 현장 점검과 무상 정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고장이 심한 기계는 관내 전문 수리업체와 연계해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 사용법과 교통안전 예방 교육도 병행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초기는 벌초와 논두렁 풀 베기 등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고속 회전 칼날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센터는 안전모,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등 보호 장구 착용과 올바른 작업 방법 준수를 강조했다. 작업 전 주변의 벌, 유리병, 돌, 캔 등 위험요소 확인, 무리한 작업 자제, 음주 작업 금지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안내했다.

또한 예초기를 보유하지 않은 농업인을 위해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예초기 60대를 분산 배치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 희망자는 신분증과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개인실손보험' 사본을 제출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보호 장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밤마실&생맥주 파티' 가을밤 매력 선사

12~13일 중앙동 근대역사관 광장서 개최

익산시가 시원한 맥주와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로 중앙동의 가을밤을 밝힌다.

익산시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중앙동 근대역사관 광장에서 '중앙동 밤마실&생맥주 파티'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가을밤, 공연을 즐기며 생맥주 한 잔'이라는 주제로 기획돼, 방문객에게 구도심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지역 기업인 하이트진로와 미생맥주, 문화예술의거리 협의체가 운영하는 맥주·안주 부스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책임진다.

또한 문화예술의거리와 치킨로드 일원에서는 치킨로드 입점업체의 다양한 닭요리와 하림 프레시마켓의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닭 요리 특화 거리인 치킨로드에는 △1호점 '연품닭' △2호점 'BBQ치킨 익산문화점' △3호점 '삼남극장' △4호점 '꽃피우닭' △5호점 'BHC치킨 익산역점' △6호점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중앙점' 등 6개 점포가 개점했다.

하림 프레시마켓은 지역 대표 식품기업 하림이 생산한 닭 요리 재료를 선보이는 전시·판매장으로 무뼈닭발, 닭목살, 치킨너겟 등을 상시 판매하고 있다.

행사 기간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공연이 더해져 밤마실 나온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근대역사관 광장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댄스공연과 전자음악(EDM)파티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또 다이로움 큐알(QR)결제 이벤트도 마련돼 현장에서 결제 시 10%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으로 변화하는 구도심을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영수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축제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치매안심가맹점 12곳 신규 지정

지역 안전망 강화

정읍시가 치매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곳의 치매안심가맹점을 새로 지정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현판 전달식을 마쳤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환자가 길을 잃거나 실종될 경우 임시보호와 경찰 신고를 지원하고, 치매자원봉사활동과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호밀호두, 명성장식, 대동샤시 문백화점, 와플대학 정읍점, 카페 오롯, 로또복권, 엉클베이커리, 본가, 민들레뜨락, 남매안경원 상동점, 메가엠지씨커피 신태인점, 개인택시 등 총 12곳이다. 이로써 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9개소의 치매안심가맹점을 관리하게 됐다.

가맹점은 편의점, 카페, 미용실 등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치매안심가맹점을 꾸준히 확대해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관내 개인사업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밀폐공간 작업 관리 강화대책 시행

근로자 생명 최우선 선제 대응

익산시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맨홀, 하수관로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보디캠·가스측정기 의무 착용 △2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등이다. 시는 그간 밀폐공간 작업 관리 계획을 수립해 안전 사항 안내, 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보디캠과 가스측정기 의무 사용은 2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38개 사업장 총 144개 작업현장에 적용된다. 보디캠은 작업자의 출입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고, 가스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위험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를 밀폐공간 작업이 잦은 시설에 우선 배치하거나 필요시 대여·반납 방식으로 운영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근로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MRO 산업 발전 모색

한미 조선·해양산업 협력

군산시는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軍)·산(産) MRO, 군산(群山)과 함께'를 주제로 2025 한미함정 MRO 군·산 융합발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협상에서 조선업이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가운데, MASGA 프로젝트 대응과 함정 MRO 산업 발전, 특수목적선 선진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신영대 국회의원, 오경원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해군, 해경,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LIG넥스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Ships for America Act와 한미 조선협력'을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과제'를 △이수억 방위사업청 대령이 '한·미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은 함정 MRO 융합산업, 특수목적 선진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우수한 항만·물류 인프라, 군산 조선소와 국가산업단지 등 기반이 두루 갖춰진 도시"라며 "이번 포럼이 군산의 도전과 비전을 공유하는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1천여명 참여 '정읍내장산배 족구대회' 성료

전국 족구 동호인 1000명이 참여한 정읍내장산배 전국 족구대회가 이틀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태인성황축구장에서 열렸으며, 대한민국족구협회와 전북특별자치도족구협회, 정읍시족구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경기는 일반부, 40대부, 50대부, 60대부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예선 리그전과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수들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세대별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대회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의 열정과 팀워크가 빛을 발하며 화합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족구 동호인들 간의 친목과 화합이 더욱 두터워지고, 지역 체육 발전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향토유산 2건 신규 지정

역사적 신뢰성 입증 '손화중 도소터' '충현사 편액' 지정

고창군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창 손화중 도소터'와 '고창 충현사 편액' 등 2건을 고창군 향토유산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고창군>

고창군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창 손화중 도소터'와 '고창 충현사 편액' 등 2건을 고창군 향토유산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창 손화중 도소터(성송면 괴치리)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이 1893년 10월 도소를 설치했던 장소다. 이듬해 1894년 3월 20일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무장기포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된 장소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지정 과정에서는 지역 거주민들의 구술 전승과 표본조사를 통해 손화중 도소(최부자집 대문채)의 구체적 위치가 확인돼 역사적 진정성과 학술적가치가 한층 높아졌다.

도소는 동학을 포교하는 종교적 의례 및 수행하는 공간이었으나, 차츰 동학농민군의 집회 장소이자 관내 치안과 행정을 수행하는 집강소의 역할로 확대해 운영한 장소이다.

△'고창 충현사 편액' (무장면 교흥리 충현사에 위치)은 광해군 1년(1609년)에 임금이 직접 사액(賜額)한 편액이다. '조선왕조실록', '미암일기' 등 당대 문헌에 사액 기록이 명확히 서술돼 있으며, 방사성 탄소 연대분석 결과 역시 문헌 기록과 일치해 역사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또한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원형을 유지해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편액은 널빤지나 비단 등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문 위에 거는 액자를 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향토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은 고창의 뿌리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 고창의 문화적 자산을 널리 알리고 군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정으로 고창군은 기존 11건의 향토유산에 더해 총 13건의 향토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조례안 등 18건 안건 심사

제292회 임시회 개회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첫날인 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본회의 산회 후 다음 날인 10일에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일정으로는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5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심사한 예산안과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인구유입과 정주지속성을 위한 정책 제언(주상현 의원) △농로(農路)의 체계적 관리 대책 촉구(김주택 의원) △김제시 일제 잔재 청산 우리 지명 정비 제언(최승선 의원) 등 김제시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백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강조하며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10월 2일까지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부안군은 구제역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10월 2일까지 25일 동안 '2025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 기간에는 한우와 젖소 2만 7천여 마리를 비롯한 우제류(소, 돼지, 염소) 6만 8천여 마리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게 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가축 소유자가 직접 접종하는 자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부안군은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시술능력이 없는 농가 등의 경우 공수의사 및 관내 공·개업 수의사 6명이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소 50두, 돼지 1,000두, 염소 50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는 백신을 무상공급하며, 전업농가의 경우 고창부안축협 부안지점에서 백신 구입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올해 3월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당초보다 빠른 9월에 일제접종을 실시하게 됐다"라며,"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은 필수 사항인 만큼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장 차단방역, 주기적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생명나눔 희망의씨앗 캠페인 전개

생명나눔 주간 맞이 시민 관심·참여 확산 도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8일부터 전통시장 일대에서 제8회 생명나눔 주간을 맞이해 생명나눔 희망의씨앗 캠페인을 일주일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은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 주간 행사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동시에 진행하는 합동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기증희망등록 상담 등 현장 행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참여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생명나눔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생명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기에 이번 희망의씨앗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움직임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읍성 어린이 탐사단 '모양해찰단' 모집

27일까지 초 3~5학년 대상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오는 27일까지 고창읍성 어린이 탐사 프로그램 '모양해찰단'을 모집한다.

모양해찰단은 21일과 28일 두 차례 활동할 예정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그래서 예술학교'의 일환으로 고창읍성을 오감으로 탐험하고 청소년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5학년이며, 참가 학생들은 탐사 도구를 활용해 공북루, 동헌, 맹종죽림 등을 탐사하며 느낀 내용을 그림과 글로 남기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기록은 어린이의 눈높이와 시선이 담긴 '고창읍성 가이드북'으로 제작될 계획으로, 단순한 유산 관람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 지역 유산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문식 센터장은 "모양해찰단은 고창의 청소년들이 고창읍성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면서 주체적 탐구력을 기르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미스트롯2 양지은·황승아 출연 열린음악회 29일 공연

부안군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양지은과 황승아, 그리고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2025 열린음악회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부안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TV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은 양지은과 황승아가 출연해, 트로트와 클래식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연주가 더해져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 창단이래 무지컬, 발레, 콘서트등 다양한 공연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매년 30회 이상의 연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예술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이번 열린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가을철 축제 성공개최 다짐

"테마파크 기업유치 관련 가짜뉴스 단호대처" 강조

심덕섭 고창군수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을시즌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시 활력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정웰파트호텔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즐기자'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심 군수와 각부서 과장들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비롯해 '2025세계유산축전', '제52회 모양성제'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주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장애인체전, 세계유산축전, 모양성제까지 올 가을 고창군이 축제와 행사로 들썩인다"며 "전북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고창에서 머물면서 고창군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심 군수는 최근 지역 내에서 번지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고창종합테마파크에 대해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통일교 논란과 ㈜모나용평 투자와 운영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관련 인·허가와 관리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 주민 의견, 지역 발전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는 22일부터 고창군민활력지원금과 정부의 2차 소비쿠폰으로 군민 1인당 30만원씩을 받게 된다"며 "민생회복과 지역활력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세부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도내 최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제정 시행

부안군은 갯바위 등 바닷가와 방파제 등 항포구를 방문해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실족에 따른 추락과 만조시 고립 등 각종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서는 최초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해 8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련된 지침에는 낚시인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수면의 여건이 낚시를 하기에 부적합 경우에는 낚시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낚시인의 안전 확보와 사고 방지를 위해 간출암과 무인도, 어항구역 내, 공유수면내 인공구조물, 기상특보 발효시 해안가 등은 출입을 금지하며 기상 상태와 수면의 상황, 조석시간 등을 확인하는 등 낚시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정하고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주류 반입, 음주, 다른 낚시인의 낚시 행위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낚시인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부안을 찾는 많은 낚시인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낚시레저활동을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혈압·혈당 무료 측정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고창군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합동 건강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일 고창 장날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4일에는 하나로마트와 임시버스터미널을 찾아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무료 측정 △전문 상담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 홍보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습관 관리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고창군 보건소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인 만큼, 정기적인 혈관 숫자 확인과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마케팅영농조합, 지역사회 나눔 앞장

임직원 일동 고향사랑 기부금 5백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5일,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부안군은 지난 5일,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장섭)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안마케팅영농조합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각자 부안을 생각하는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기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부안마케팅영농조합은 부안군의 농산물 유통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의 중심에서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도 앞장섰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온 부안마케팅영농조합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 소중히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양돈농가 질식재해 예방 안전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8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전북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양돈농가 질식재해 재발방지 전북도 권역별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인천 맨홀사고를 비롯해 양돈장 내 질식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고용노동부·전북특별자치도가 양돈장 내 질식사고 예방과 양돈농가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최했다.

교육내용은 △양돈농가 질식재해 관련 당부사항 △양돈농가 질식 재해 예방 및 작업 시 안전관리 요령 등 양돈장 내 질식재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홍보해 양돈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양돈장 내 분뇨처리 과정에서 질식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주요 안전사고 중 하나로, 농가와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세방 완주물류센터 준공 '호남권 물류 혁신'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490억 투자 1만2천평 규모 조성 기업 물류비 절감·신속 유통망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방(주)이 9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완주복합물류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 조점술 전주세관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고객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세방(주)은 1960년 설립된 국내 대표 종합 물류기업으로, 항만하역·운송·보관·자동차 운송 등 다양한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거점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물류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에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세방(주)은 490억 원 투자를 바탕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부지면적 약 1만 2,000평 규모를 바탕으로 위험물 창고동, 일반 상온창고, 옥외 저장소를 구축하며 최신 설비를 갖춘 물류센터를 조성했다.

이번 센터 준공으로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의 물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신속한 유통망 확보를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세방(주) 완주복합물류센터 준공은 완주군의 산업과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전남 담양과 '상생발전'…자매결연 협약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유치 연대 문화·체육 등 다분야 교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담양군이 9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담양군이 9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정철원 담양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민간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교육,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약속했다. 특히, 양측은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공동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를 강조하며, 공동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도시는 2003년부터 구곡순담 장수벨트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동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민선 8기에는 순창발효관광재단과 담양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에는 담양호 저수량 확대를 위해 순창군 구림면 도수터널의 차수벽을 철거해 가뭄 극복 지역 상생을 위한 용수공급 협력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두 지역은 오랜 기간 가까운 이웃으로서 문화와 생활을 함께 해온 역사적 생활공동체"라며, "이번 협약이 정책적 비전과 생활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공동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수, 국회서 5대 핵심 사업 예산 반영 요청

유 군수, 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수소산업·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완주군 주요 현안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사진=완주군>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완주군 주요 현안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유 군수는 '10만 완주시대' 달성과 전북 4대 도시 도약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5개 핵심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81억 원) △완주 운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92억 원)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50억 원)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258억 원)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36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수소 산업, 재해·환경, 사회적경제, 복지 등 민선8기 완주군의 핵심 전략 분야다.

특히,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는 정부의 수소버스 2만 대 보급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필수 인프라로,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지인 완주의 위상과 연계해 글로벌 수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완주 운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유 군수는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어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만나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기반 지역혁신 모색

대학협력위 기본계획(안) 심의 정주 기반·산업 연계 전략 논의

남원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남원부시장 이성호)'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남원시 대학협력 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위기,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본계획」, 「글로컬대학30」 등 대학혁신·지역상생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산업 연계 △청년 정주여건 개선 △글로벌 교류 확대 및 국제화 △교육·연구 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학협력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정주 기반 확충 △창업·산업 연계 △문화·교통 인프라 개선 △외국인 유학생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대학협력위원회를 통해 단순히 교육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을 매개로 한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확립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정부의 대학혁신 정책 기조에 부응해,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전북도 정신장애인 신명이축제 '성황'

도내 4개 정신요양시설 참여 복지 기여자 28명 표창

남원시는 9일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신장애인 신명이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하고 남원 스마일빌이 주관시설로 참여한 이번 축제에는 도내 정신요양시설 4개소(남원 '스마일빌', 전주 '참사랑낙원', 익산 '삼정원', 완주 '정심원') 입소자와 종사자, 자원봉사자, 지역 인사 등 450여 명이 함께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축제는 '서로를 이해할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재활 의지를 북돋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명랑운동회로 진행됐으며, 1부 기념식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종사자, 자원봉사자, 모범 거주인 등 28명에게 도지사·도의회의장·남원시장·남원시의회의장·사회복지협의회장·정신요양시설협회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돼 그동안 정신장애인 복지에 헌신해 온 노고를 치하하고 참석자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장류축제, '먹거리 지역특화' 본격화

쉴랜드서 시식·평가회 '1읍면 1메뉴' 최종 확정

순창군은 지난 8일 쉴랜드에서 '1읍면 1메뉴' 시식·평가회를 개최하고,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먹거리부스 운영을 위한 읍·면별 대표 메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읍·면장, 부스 운영대표자, 우석대학교 RISE 추진단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각 읍·면이 준비한 주메뉴를 직접 시식·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맛과 특색, 상품성, 가격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마지막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군은 올해 장류축제에서는 기존의 내부 평가 방식을 넘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맛과 품질,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전했다. 방문객이 현장에서 음식을 맛본 후 평점을 매기면 이를 집계해 1·2·3등을 선정하고, 축제가 끝난 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주메뉴 가격은 읍·면 부스별로 동일하게 책정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각 부스는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만 판매하도록 하여 중복 없는 차별화된 운영으로 먹거리 부스는 한층 풍성해질 전망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귀농귀촌 '열풍'…상담 예약 최다 기록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참가 지원 정책·정착 프로그램 알려

완주군이 지난 3일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내가 그린대로, 고향의 품으로'를 주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상담(시군상담관, 전문가상담관), 설명회(귀농귀산촌, 스마트팜, 체류형 쉼터 등), 교육(귀농귀산촌, 청창농 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완주군은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전상담 예약 결과, 1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예약율을 기록하며 완주군의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한편, 완주군은 매년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2차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서울 귀농귀촌 상담전 참여 '도시민 호응'

귀농특강·전문가 1:1 상담 운영 귀농인 경험담 실질적 정보 제공

순창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방배동 양지빌딩에서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여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전북 13개 시군과 전북 귀농귀촌 연합회 등이 참여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과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행사 기간 동안 △귀농귀촌 마인드·청창농 영농정착사업 등 특강 △귀농·귀산 전문가 상담 △전북 13개 시·군 부스 1:1 상담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방문객들은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순창군 부스에서는 △이사정착비 지원사업 △귀농자 소득기반 조성사업 △주택수리 및 신축 지원사업 △귀농귀촌 멘토링 프로그램 등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소개했고 △귀농귀촌 한 선배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전북도청서 고향사랑기부 신규 답례품 홍보

남원시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사를 찾아 직원 및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 홍보 행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제공되던 답례품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선정된 답례품을 전북도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25년 고향사랑 기금사업' 성과 사진을 전시하며 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더불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를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도민들이 남원시의 답례품을 보다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김부각 △샤인머스캣 △도라지정과 △황진이 △참기름·들기름 세트 △조청 세트 △추어탕 △화장품 등을 전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김부각과 샤인머스캣은 시식 기회도 제공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즉석 기부자에 대해 소정의 김부각 선물세트와 도라지정과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수배 전북도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 성료

완주군장애인체육회가 최근 완주생강골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완주군수배 전북도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내 장애인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교류와 실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수단과 심판, 운영진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완주군장애인체육회장인 유희태 완주군수를 포함한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서남용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및 전북도 시·군 장애인 파크골프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환영사에서 "완주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10만 완주군민이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삼호정밀 김일천 대표의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김 대표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대회를 지원하며,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방역소독초소 근무 기간제 근로자 24명 공개 채용

순창군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소독 인력을 모집한다.

군은 오는 11일까지 관내 거점소독초소 및 농장통제초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은 특별방역기간인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 현장에 투입된다.

근무지는 가남 및 쌍암 거점소독초소(20명), 동계 거점소독초소 및 농장통제초소(4명) 등이며, 각각 3교대 근무와 주간 고정근무(08:00~16:00)로 운영된다.

채용된 인원은 축산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을 오가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진안청소년수련관 '늘 봄' 동아리, 전국 청소년 봉사대회 장려상 수상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 동아리 '늘봄'이 KB라이프 생명사회공헌재단에서 주관한 제27회 전국 청소년 봉사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늘봄' 동아리는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 봉사활동을 제출하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늘봄'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봉사 동아리로, 지역 마을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류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세대 간 이해와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관심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늘봄 동아리의 정원석 청소년은 "마을 봉사활동은 솔직히 힘들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해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실 때 뿌듯함을 느낀다"며 "우리가 좋아서 하는 봉사활동이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학교 흡연 예방 스마트 퀴즈쇼 실시

임실군은 지난 5일 임실동중학교 2학년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스마트 퀴즈쇼를 실시했다.

최근 흡연 경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성장기 청소년에게 흡연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금연의 중요성을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퀴즈쇼는 1인 리모컨을 이용하여 퀴즈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의 호응도와 집중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시기의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간접흡연을 통해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아도 위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교육 실시

진안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안군이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촌 활력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상수 대리가 강사로 나서 사업 개요와 운영절차를 설명하며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고, 이어서 전산 활용 교육이 진행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N치즈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배드민턴 황제 박주봉과 함께하는 배드민턴대회

심민 군수와 박주봉 감독 <사진=임실군>

올해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특별하게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에서는 임실 출신이고 세계적인 배드민턴 스타이자 국가대표 감독인 '박주봉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첫 개최 된다.

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치즈축제 기간에 총 8개 종목의 체육대회가 동시에 치러지는 가운데 '박주봉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이 기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전설이자 현재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박주봉 감독은 고향 임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박주봉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배 배드민턴대회(가칭)'를 직접 추진하며 지역 발전과 체육진흥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박 감독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체육을 통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자 '임실N치즈 브랜드'의 가치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총 8개 종목의 대회가 치러질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박주봉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비롯하여 임실N치즈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 △임실N치즈배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임실N치즈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총 8개 종목이다.

이에 따라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임실을 찾아 기량을 겨루게 되며, 대회 기간 선수단과 가족, 응원단 등 수천 명의 방문객이 임실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2025 무주 반딧불 전국 천마요리대회 진행

사전 선발된 20개 팀 참가 오방삼계탕 등 요리 선보여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2025 무주 반딧불 전국 천마요리대회'가 9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됐다.

(사)무주천마사업단이 주최하고 ㈜다이어리알이 주관하며 무주군이 후원한 이날 대회는 무주지역의 대표 먹거리 '천마'를 전국에 알리고 일상 속 식재료로서 '천마' 활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조리법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무주군 지역 내 외식 업소뿐만 아니라 조리 전공 고등학생 및 대학생, 그리고 60대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20개 팀이 참가해 '천마' 요리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오방삼계탕, 크림피자, 바질크레마 등의 요리를 조리해 무주 천마의 다양한 맛과 멋을 선보였다.

김진만 (사)무주천마사업단장은 "출품작 조리법과 노하우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무주군 지역 내 외식 업소에 적극 전수할 예정"이라며 "입상 메뉴를 무주군 대표 특화상품으로도 육성해 천마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장에서는 천마요리대회 외에도 식전 행사로 '천마 아이스크림' 및 '천마 가공품 시식 및 증정', '천마 맛집 홍보'의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안현민 쉐프 초청 요리 시연' 행사도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전국 천마요리대회를 주관한 무주천마사업단(2011.~)은 무주 천마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 조직으로서 천마 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구축, 브랜드화, 자립화를 위해 활동하며 무주 천마의 대중화와 상품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전춘성 군수, 농식품·국토부 방문‥정부 지원 확보 총력

'진안 미래 비전'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가 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군수는 지난 8일 오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진안군 전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전 군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농업의 핵심축이 될 신광재(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산업화 단지 조성에 대해, '세계 바이오산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산림약용작물 융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국가 단위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공모 사업 선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재생에너지 공동이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전 군수는 진안군을 전북 동부권의 교통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통 기반 확충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건의했다.

먼저, 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 국도 26호선(전북 진안 ~ 완주 소양, 698억원) △ 국도 26호선(전북 진안 ~ 장수, 817억원) △ 국도 30호선(진안 백화 ~ 삼락, 360억원) △ 국지도 49호선(진안 상전 ~ 동향, 290억원) 3개 도로 개량 사업에 대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영호남 내륙을 잇는 '전주~김천간 영호남 내륙철도(진안 경유) 사업'에 대해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진안군이 동부 내륙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된다.

더불어 '전주~무주(진안 경유)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물류 유통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교통 인프라 및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사업들인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과 '제2차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에서 전북·경북·충북 3도가 만났다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개최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문화 가족들이 9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현장에서 만났다.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한 제25회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로, 맹갑상 무주문화원장과 이기양 김천문화원장, 백승원 영동문화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 문화원 회원 230여 명이 함께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오광석 무주군의회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내빈들이 함께 한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각 시군 문화를 교류하며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내용이 담긴 3도 협약서 내용을 공유하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사람도 지역도 함께 할 때 지속 가능한 힘이 나온다"라며 "삼도봉을 중심으로 연을 맺고 있는 3시·군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상생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무주가 가진 역량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김천시에서 준비한 '난타 공연'과 영동군의 '통기타', 무주군의 '소고춤'과 '국악예술단 시엘 초청 공연'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맹갑상 무주문화원장은 "3도 3시·군이 2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화합과 교류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지역 경계를 넘어 상생으로 가는 연대의 마음만은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조선 472년 역사를 300여 년간 지켜낸 실록의 고장다운 면모로 3도 문화를 지키고 꽃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생활문화예술동호회, 달빛축제 큰 호응

주민화합·문화향유의 장

장수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생문동)가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장수시장 무대에서 개최한 '달빛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생문동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이 후원했으며, 가을 정취를 담은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무대에서는 색소폰과 통기타 연주, 시낭송 등 차분한 분위기의 공연과 함께 지역 예술 동호회가 참여한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프리마켓이 열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품이 전시·판매됐다. 가방, 뜨개 소품, 도예품, 캘리그라피 소품 등 정성이 담긴 수공예품이 선보여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으며, 사과주스와 막걸리, 국수, 계란빵 등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도 함께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특히, 가족 단위로 방문한 주민들은 예술공연을 감상한 뒤 프리마켓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하며 문화와 소비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공연에 참여한 동호인들은 무대 경험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나누고,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 만족감을 드러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반려동물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접수

오는 11일까지 신청

임실군이 군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올해도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반려견을 포함한 가축과 야생동물로부터 감염될 위험이 있어 예방이 필수적이다.

이번 무료 접종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며,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군에서 지정한 접종일과 장소에서 진행된다.

군은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제공하며,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반려견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진안군이 9일 진안고원치유숲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진안군 및 12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과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추진됐다.

진안군은 강사를 초청해 진안군 주민참여예산의 변화와 발전, 신규사업 제안 및 우수사례 등을 기반으로 군의 지난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성인지 시청각교육도 함께 실시해 의사 결정 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위원회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직접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생각하며, 다양한 제안들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계남면, 제111회 계남향약 정기총회

장수군 계남면은 조선시대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을 이어오고 있는 계남향약(약장 양남철)이 지난 8일 계남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최훈식 군수와 최한주 군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박용근 도의원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85세 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며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화양리 명동마을 류인용씨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현재 향약장 임기가 만료됨으로, 차기 향약장으로 허기태 부약장이 향약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 된다.

양남철 약장은 "계남향약은 110년 넘게 우리 고장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약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계남향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에 보존되어 내려온 향약 관련 고문서로, 2018년 11월 22일 장수군 향토문화유산(유형) 제18호로 지정되어 현재 장수역사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다.

특히 향약의 4대 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은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생활 속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북에듀페이 장학생 선정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5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북에듀페이 지원 협력 기부사업의 장학생으로 이지연 청소년이 선정돼 장학금 2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지연 청소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장수군에 생존배낭 130세트 전달

집중호우 등 재난 대비

장수군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 지구(총재 김중구)로부터 재해구호물품을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재난대비 생존배낭 130세트로, 총 1,000만 원 상당의 재해구호물품으로 구성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군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 지구는 위기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생존배낭을 마련해 장수군에 전달했다.

물품은 일시 대피자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에 우선 배부될 예정이다. 생존배낭에는 비상식량, 생수, 구급용품, 손전등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호물품이 포함돼 있어 재난 발생 시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구 총재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힘든 상황에 처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 지구(총재 김중구)로부터 재해구호물품을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군산 월명동지사협, 저소득 가정에 구충제 지원

월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구충제를 전달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의료지원에 나섰다.

이번 구충제 지원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기생충 감염 예방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8일, 구충제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무주군에 분유 760통 기탁

녹십자 후원으로 기부

무주군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가 기탁한 기능성 분유 760통(3천만 원 상당)을 지난 9일부터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유는 무주군가족센터를 통해 영·유아 아동 가정과 임산부들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기부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기업 녹십자의 후원을 받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이석범 대표와 전옥 이사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아기를 키우는 가정의 분윳값 부담도 덜고 아기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싶었다"라며 "무주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김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김장 나눔 위한 배추 모종 심기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9일 오전 6시 직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20여 명이 연말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담은 김장 나눔'의 출발점인 배추 모종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식재한 배추 1,200포기는 오는 11월경 수확해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인 '사랑담은 김장 나눔'의 값진 결실이 되어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원광어린이집, 시장놀이 수익금 101만원 기탁

고창원광어린이집(원장 김공임) 원장과 원아들이 지난 8일 고창군청을 찾아 101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고창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장학금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참여한 '시장놀이'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기부로 이어졌다.

김공임 고창원광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진행한 활동이 지역 학생들을 돕는 의미있는 나눔으로 이어져 기쁘다"라며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심덕섭 이사장은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신 원아들과 교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장학금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충실히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LH삼봉사회복지관,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

완주군 삼봉지구 내 LH삼봉사회복지관이 지역 홀몸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식당, 행정기관,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삼봉사회복지관과 완주군미디어센터의 협력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카페 음료 주문 △행정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터미널 승차권 발급 △푸드코트 음식 주문 등이다.

프로그램을 참여한 독거 어르신 윤모씨는 "키오스크 기기를 직접 해 보니 자신감이 붙는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동상면 지역사랑봉사단, 도로변 국화 화단 조성

완주군 동상면 지역사랑봉사단(단장 백용기)이 지난 8일 동상면 소재지 일대에 노란 국화 화단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로변 무단 주차 방지와 운전자 안전 확보, 그리고 동상면의 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봉사단은 면 소재지 도로변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고, 가을을 상징하는 노란 국화를 정성껏 심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정읍 칠보암, 추석 앞두고 백미 300kg 기탁

정읍시 내장상동 칠보암이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300kg(105만원 상당)을 내장상동 주민센터에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기탁식은 지난 8일 칠보암 주지 진월 스님과 박은주 내장상동장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칠보암은 해마다 추석 명절을 즈음해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백미를 기탁하며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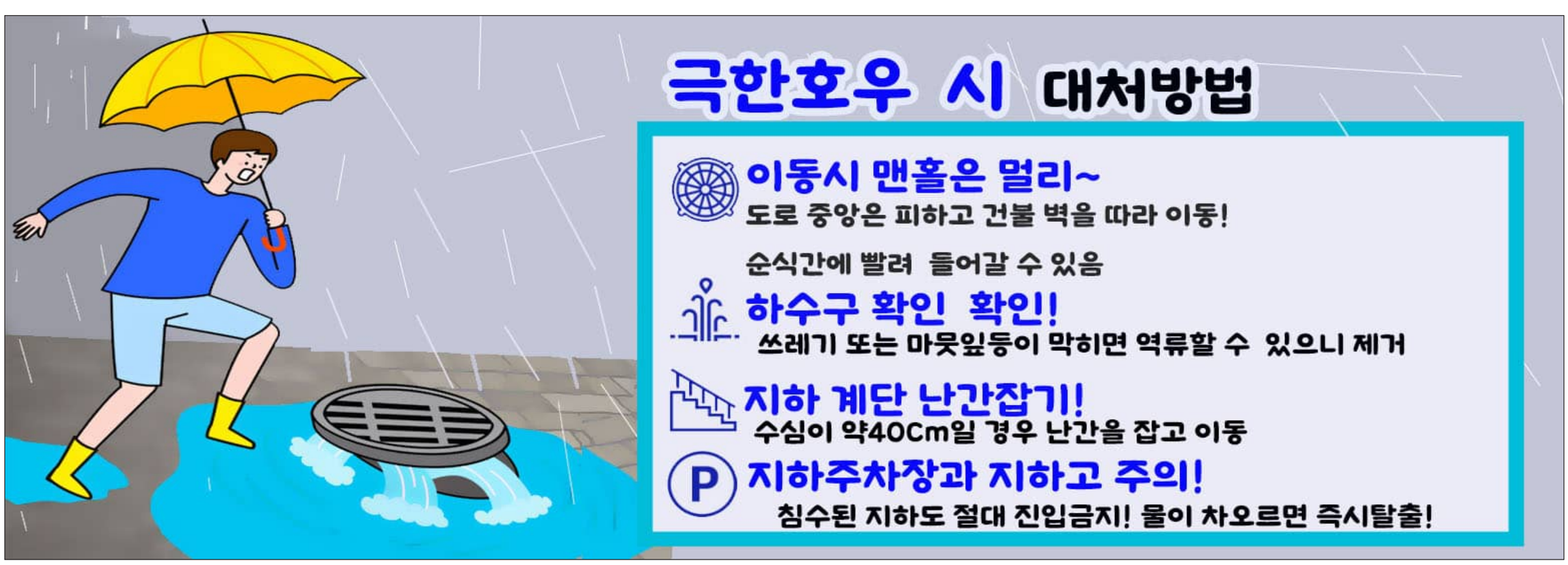
신원케미칼 서성환 대표, 무주군에 100만원 기탁

신원케미칼 서성환 대표가 지난 9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서성환 대표는 "무주 발전을 바라고 군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기부금이 요긴하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원케미칼은 19년째 운영되고 있는 산업체 폐수처리 약품 취급 회사로,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一事一言〉

더 큰 권한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김관춘

논설위원

지역을 불문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이름만 '공부'일 뿐, 실제로는 관광성 외유로 변질된 지 오래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비리가 반복됐음에도, 의원들은 늘 책임의 그물망을 피해 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전북 곳곳에서 불거진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사건에서 경찰은 말단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검찰에 송치했고, 정작 실질적인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수사선상에서 빠졌다. 시민사회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에서 "경찰의 수사가 지방의회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는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의원들의 묵시적 요청이나 사실상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무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다시 말해, 말단 직원들은 권력자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약자였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은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약자인 직원만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게만 가혹한' 전형적인 '강약약강'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인 병폐다. 고창군의회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 무려 11곳의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웅변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에 뿌리내린 도덕적 해이이자 조직적 부패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해외 관광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사적 이익까지 취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권력형 비리'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빠져나가고 말단 직원만 법적 책임을 지는 현실은 정의를 기만하는 처사다.

형법은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을 가중 처벌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공동 가담자의 범죄 구조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해외연수로 실질적 이득을 챙긴 자가 누구인가?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이 간단한 진실조차 외면한 채 '꼬리 자르기' 수사에만 매달린다면, 경찰은 스스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뿐이다. 시민사회가 분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자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조례와 제도를 만드는 위치에 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오히려 권한을 이용해 편법을 일삼고, 탈법적 관행을 묵인하거나 조장했다면 그 죄질은 말단 직원보다 훨씬 무겁다. 시민사회가 연일 강력한 성명을 내며, 의원들을 겨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식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은 이미 바닥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 더 이상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힘 있는 자가 먼저 책임지는 사회, 그 단순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요구할 뿐이다. 하지만 그 원칙마저 무너진다면, 시민들은 결국 거리에서, 투표장에서 직접 심판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경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금처럼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면 경찰은 '권력 눈치 보기'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수사가 지방자치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분수령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면죄부 사건'으로 기억될지는 경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 실질적 책임자에게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야말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나아가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해외연수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 사후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기구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연수 목적과 성과가 지역사회에 실제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는 이미 이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는 대표가 아니라 '특권 집단'처럼 보일 뿐이다. 의원들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공복이라면, 이제라도 스스로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사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할 것이다.

이번 해외연수 비리는 단순한 행정 비위가 아니다. 시민의 신뢰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경찰이 더 이상 강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 실현에 쓰기를, 유권자와 시민사회는 준엄하게 요구한다.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 힘 있는 자가 더 큰 책임을 지는 정의로운 사회다. 그 당연한 원칙이 지켜질 때 지방의회도, 나아가 정치 전반도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번 수사가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 설

장학숙은 청년의 집…관장 임명은 더 엄격해야

전북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전직 도의원이 임명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임명된 인물은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의 전력이 있다. 법적으로는 임명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 전북도의 해명이지만, 도민 정서와 사회적 신뢰를 고려할 때 이번 인사가 과연 적절했는지는 깊이 따져볼 문제다.

서울장학숙은 단순한 숙소 운영 기관이 아니다. 도내 청년들이 서울에서 학업과 꿈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생활의 안정과 도전의 발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다시 말해, 미래 세대의 교육·복지와 직결된 공적 성격을 띤 기관이다. 그렇다면 관장의 역할은 행정적 관리자를 넘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격적 지도자의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과 5범'이라는 꼬리표는 무겁게 작용한다.

전북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실제로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 경력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임명 대상자의 전과 기록도 12~13년 전 일로, 법률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자격 기준일 뿐이다. 도민이 임명직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흠결 없이 공동체의 신뢰를 이끌어 갈 사람'이다. 바로 이 차이를 간과하는 순간, 공직의 무게는 가볍게 전락한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객관적 요건에 더해 정성적 요소를 반영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 인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출연기관장 인사가 법적 절차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 결국 그것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전북도가 "오랜 과거를 들춰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무책임하다. 과거를 무한정 들추자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과거의 행적과 도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제도적 미비도 드러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인사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낳는다. 인사권자의 재량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의 검증과 견제 절차가 있어야 신뢰를 지킬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임명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직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도민들은 청렴과 책임감, 신뢰와 모범을 두루 갖춘 인물이 공적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래 세대와 직결된 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연기관 인사 절차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법의 최소 기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새로운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자리는 단순한 직위가 아니다. 그것은 도민이 부여한 신뢰의 위임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의 실천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기본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

▲오늘의 시

저녁 / 송 기 원

새의 그림자가 길게 끌로 가는 것은 누구일까
땅거미가 야금야금 갉아 먹는 것은 무엇일까
붉은 옷의 승려가 사는 서녘에서는
마지막 시체가 연기를 피워 올리고

떠난다거나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미 먼 세상의 일이다
서른세 번, 망자를 거두는 종이 울리면
어렵사리 네가 붙잡은 나마저 사라진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소설 처자식과 아름다운 얼굴,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수필집 해남 땅끝에 가고 싶다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등을 수상했다. 2024년 세상과 작별했다.

문화재열전

안심사소장동종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공예, 의식법구
-지정일 - 2005년 12월 16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26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시

마음 아플 땐 의지하고, 배움과 나눔으로 희망 ‘두 배’

[우범기 전주시장 인터뷰]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시민이 살아가는 전주를 꼭 만들겠습니다”

“전주시는 마음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조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 참여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신건강 선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의학은 발전했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 이라며 “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시민의 마음을 돌보고 정신건강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마음과 행복은 전주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전주 대변혁을 위한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라며 “모든 시민의 마음에 진심을 다해 들여다보며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시장은 “시민 누구나 원하면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어르신은 매년 1회 무료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도시, 마을 곳곳에 마음돌봄 교육 공간이 운영되는 도시,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건강 자원봉사자가 성장하는 도시를 꼭 만들겠다”면서 “도시 전체의 규모도 커지지만, 마음은 더욱 커지고 깊어지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정신건강 의료돌봄 체계 마련
마음 온 프로그램 등 일상에서 만나는 마음돌봄 강화 플랫폼 구축

전주시가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꼼꼼히 챙겨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마음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의지할 곳을 만나고, 교육과 나눔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마음이 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전주

먼저 시는 전주시민 누구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아픔이 닥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자가 진단과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를 통합해 (가칭)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마음치유 상담소’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여기에 시는 갱년기 세대와 위기 가족, 고립·은둔 대상자에게는 위기관리 특화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에게는 치료 연계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례별·대상자별로 세분화된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시는 취업난 등의 스트레스로부터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청년층을 위한 ‘토닥토닥 마음상담소’를 운영하고, 최근 증가하는 아동 우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0세 미만 미취학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회복지원공간인 ‘첫마중’ 공간을 활용한 사회화 프로그램과 주거지원주택(10채) 제공 등 치료 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시는 △60세 이상 시민 연간 1회 무료 치매 검진 시행 △오는 2028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전문요양원 건립 △치매안심병원 추가 지정 △치매안심마을 15개 동으로 확대 등 선도적인 치매안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전주

또한 시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에서 즐겁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다양한 마음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선별해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모델인 전주형 ‘마음 온’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음 온 프로그램은 △서예·바둑 등 학습 기반을 통한 ‘치유’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을 통한 ‘자유’ △인문학 배움의 ‘향유’ △요가·명상 등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여유’ 등 4(思)유 프로그램 100개 강좌가 운영돼 연간 1만 명의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등 생활거점을 활용한 찾아가는 학습공간인 ‘마음 온 편의점’ 100곳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사는 곳에서 10분 이내에서 손쉽게 마음 돌봄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오는 2026년부터는 시민 마음돌봄 축제인 ‘마음온 페스타’를 개최해서 상담과 휴식, 체험, 전시, 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누리는 전주만의 정신건강 대표축제로 키워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전주 곳곳의 자연휴식공간과 문화예술공간, 종교문화공간 등 힐링명소 100곳을 ‘마음 돌봄 힐링 명소’로 발굴·지정하고, 이를 표기한 ‘마음산책지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간을 방문하면 ‘마음충전 포인트’도 제공된다.

△나눔과 위로로 살아갈 힘을 얻는 전주

끝으로 시는 전주시민들이 이웃을 위한 나눔을 통해 마음건강을 지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봉사를 통한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 회복을 통해 나눔으로 완성하는 정신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매월 1시간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는 ‘온정한 시간’ 캠페인을 추진하고, SNS 인증 문화를 통해 봉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학과 직능단체, 재능봉사단체 등 시민사회와 연계해 정신건강 돌봄 전문 봉사단체인 ‘온정 토닥토닥 봉사단’을 조직한다.

봉사단은 △이미용·세탁 등 생활 지원과 말벗, 심리 지원 등을 맡는 ‘정서돌봄팀’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담당하는 ‘마음방역팀’으로 구성돼 연간 5만 명의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특화교육을 통해 온정 토닥토닥 봉사단으로 활동할 정신건강 분야 자원봉사자를 연간 200명을 꾸준히 양성키로 했다.

또, 시간당 240포인트로 제공하던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오는 2035년까지 시간당 2,000포인트까지 상향 지원하고, 으뜸 자원봉사자를 매년 선정해 자원봉사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참여 분위기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전주 대변혁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시민들의 건강한 마음과 행복을 구현한다는 각오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과 시대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정신건강 으뜸도시를 위한 더 세부적인 정책발굴과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행복의 징검다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편집=정혜민 기자